하나님 이름으로 생각을 켜라

(시편 66:1~20)

1.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2.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3.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4.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5.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6.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7.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생각을 켜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생각을 켜라'

의사소통병리학자이자 청각학자인 캐롤라인 리프(Caroline Leaf)가 "뇌의 스위치를 켜라"는 책에서 "생각이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온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생각과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신 엄청난 능력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다루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힘이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랍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선택을 생각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생각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지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마음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심하면 두뇌 속 화학물질의 흐름이 변화된다. 화학물질의 흐름의 변동은 일단의 유전자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방향으로 움직인다. 과학은 이런 현상을 후성유전이라고 설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 끝에 결정을 내리면 그 생각의 과정을 통한 선택에 따라서 영과 혼과 육의 상태가 달라지고, 그 결과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캐롤라인 리프의 주장에 의하면 내가 하는 생각의 결과로 정자와 난자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 변화는 향후 4대에 걸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9절의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라고 하는 성경말씀으로 자신의 주장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곧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바른 선택을 하면 계속해서 복지의 삶은 유지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캐롤라인 리프는 이 성경말씀을 자신의 주장에 대한 뒷받침으로 삼아 이미 성취되었다고까지 하는데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해봅니다.

생각은 이름으로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시동을 거는 이름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의 생각이 시작될 때에는 생각을 가능하게 하고 활성화시키는 첫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첫 번째 이름이 바로 내 생각을 켜는 열쇠와 같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이 정신적 작용을 하는 이유는 바로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마음 공백의 과제는 채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캐롤라인 리프는 생각에 따라서 정자와 난자의 유전적 형질까지도 영향을 받게 됨을 후성유전이라는 현상을 통해 주장합니다. 후천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뜻하는 후성유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로 채우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채우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신활동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의해서 말하고 행위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생각이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힘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중하시는 성경에 입각해서 다시 정리해봅니다. 생각은 내 마음에서 떠올리는 첫 번째 이름으로 시동이 걸립니다. 생각의 시동이 걸리는 이유는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으로 채우고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을 켤 때에 복지의 삶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모두를 위해서 언약의 땅이자 잃어버린 에덴을 준비해두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두신 에덴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실된 약속의 땅인 에덴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생각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줍니다.

모든 생각은 마음에 떠올리는 첫 번째 이름으로 시동이 걸립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에 시동을 걸어서 살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복지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허락받았던 복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선민들이 복지를 잃은 이유는 생각을 켜는 첫 번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대신 풍요와 다산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벌고 부자 되는 것으로 생각을 켰던 것입니다.

돈이라는 이름으로 생각을 켜면서 살다가 결국 복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복지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 생각의 정신활동에 시동을 걸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돈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하나님의 이름에 앞서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가족이 먹어야 될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에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이름이나 명제나 모토나 장면으로 생각이 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저자가 분명치 않습니다. 학자들은 남 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중의 한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출애굽 때의 홍해도하 사건과 가나안 입성 때의 요단강도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본문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2절의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서 다른 모든 존재들의 이름을 젖히고 일등을 하신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려지는 상태입니다. 이전 설교에서 '이름은 존재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생각은 활성화됩니다. 즉 언제 어디서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첫 번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시면 하나님을 채우기 위한 생각이 발동합니다.
내 마음에 돈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면 돈으로 인해서 생각은 활성화됩니다.
'어떻게 돈을 벌까, 어디에 가서 돈을 벌까, 오늘 나가서 거래처 직원과 만나 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가득해집니다. 이렇게 돈이라는 이름이 마음에서 영광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심지어 친구를 만나도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게 되고, 이성 관계에서도 경제적 이득이 최종목적이 됩니다.
이처럼 마음에 첫 번째로 떠올리는 이름에 의해서 생각은 켜지기 때문에 영광으로 표현을 합니다. 영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마음에서 일등 하는 상황으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라는 것은 곧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등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갔음을 강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이 켜지는 상태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녁 9시에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항상 편치만은 않지만 3시에 일어날 때마다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일등 현실이라는 것

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바쁘게 돌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휘둘리다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순위는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돈 건강 인간관계 월급 승진 취직 등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마음을 지배하는 첫 번째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이 일등 현실이 되어야만 여러분의 엉킨 삶이 풀려나간다는 것을 전하고,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등 현실성과 그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일임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무엇이든 생각하기 시작하며 삶의 시동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동은 어떤 이름으로 켜느냐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이름으로 시동을 걸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다가, 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내 뜻을 하나님께 주입하여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이 나를 통과해 흐르게 해야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께 내 뜻을 주입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꼭 천국의 상황을 생각해야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직장에 들어서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니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월급도 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뿐입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내고 감옥에서 죄수로 지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활동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첫 번째로 떠올려질 수 있을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을 첫 번째로 떠올리기 위해서는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세 살 꼬마의 마음에는 돈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돈의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돈을 일등으로 여기게 되는데 돈의 맛을 알아

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맛을 모르면 하나님을 일등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게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이런 맛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먹고 마심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돈 문제나 건강 문제 등으로 난리가 나고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연히 돈이나 건강이라는 이름이 일등으로 떠오릅니다. 그럴 때에 번제단에서 죽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일등자리를 되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돈 건강 자녀형통 등의 이름이 떠올라서 생각이 활성화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죽습니다. 캐롤라인 리프의 말처럼 생각은 온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힘이 셉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보면 반드시 말을 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이 내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것이 잘된 말이든 못된 말이든 잘된 행동이든 못된 행동이든 그렇게 한 결과들이 내 의도대로 되었든 그렇지 않든 내 삶의 내용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유전적 죄악의 체질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의 이름을 생각하며 스스로의 삶을 개악(改惡)의 창조를 해나가며 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개악하며 제2의 창조를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 다음으로 강하다는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생각으로 시동을 걸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빨리 번제단에서 죽여야만 합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사십 년 동안 선민들이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허락하신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을 켜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부를 수 있는 것도 없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 물이 생기고 떡이 생겼습니다.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이 해어지지 않았고 사십 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당장 쌀독에 쌀이 없더라도 생각해야 하는 것은 쌀이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생각이 떠오르려고 할 때에 얼른 그 마음을 번제단에서 죽여야 합니다.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250만 명을 사십 년 간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쌀

이 없는 것으로 인해 시동이 걸리는 생각을 십자가 번제단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붙잡고 250만 명을 광야에서 다 살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복지를 살 수 있는 비결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생각을 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유전적 체질과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체질은 육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이 세상의 존재들의 이름을 떠올리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이름, 노후라는 이름, 건강이라는 이름, 인간관계라는 이름을 떠올리며 생각을 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유전적으로 이 세상 것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생각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들의 이름으로 켜진 생각을 십자가로 꺼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함으로서 세상에 대한 생각을 끄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첫 번째가 될 때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으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재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로 배 부르려 하는 것은 운명입니다. 생떼를 부리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배부르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떠올린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그 직장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자리임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떠올린 사람은 배우자를 볼 때에도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임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자녀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녀들임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에 대해서도 그 쓰임새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생각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생각을 켰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계획이 흘러들어오고 성취됩니다. 생각은 마음에 떠오르는 첫 번째 이름으로 시동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시동을 걸고 활성화하려는 모든 생각을 십자가 번제단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갑부 되게 해주세요.'라고 생떼를 쓰면서 간구해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추구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켜진 나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이 땅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켜지는 생각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를 떠올림으로서 유전적 체질로 인해 세상 것의 이름을 먼저 떠올리는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부활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켜진 생각을 통해 허락하신 복지가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